

2023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우수상
2023 서울시 건축상 우수상

숲속,
우리들의
비밀기지

BUNKER

대방청소년문화의집

조진만

(주)조진만건축사사무소 대표

개요

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36길 71
용도	청소년수련시설(생활권수련시설)
대지면적	9,547.3m ²
연면적	1,491.5m ²
규모	지하 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기존), 철골조(신설)
설계	조진만
설계담당	차승연
시공	옥포건설
설계기간	2020.1.~2021.4.
시공기간	2021.5.~2022.8.
공사비	약 35억 원
건축주	동작구청



대방청소년문화의집 외부 전경



지하 병커라는 환경적 제약을 극복하여 비일상적이고
특수한 환경에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함께할 수 있는 스포츠와 창작 활동,
교육과 휴식을 위한 복합적인 장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주요 과제였다.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대방청소년문화의집



2층 메이커실



© [주]조진만건축사사무소



© [주]조진만건축사사무소



© [주]조진만건축사사무소

상·하 1층 ICT스포츠존



©(주)조진민건축사사무소



©(주)조진민건축사사무소

상 2층 미디어실
하 2층 네트워크 라운지



©(주)조진만건축사사무소



©(주)조진만건축사사무소

상 2층 스포츠코트
 하 3층 청소년 전용 공간



©(주)조진만건축사사무소



©(주)조진만건축사사무소

상 청소년 페스티벌이 진행 중인 다목적홀
하 군용시설에서 청소년을 위한 소통공간으로



기존의 형태를 최대한 활용한 변화

병커의 원형 스케일을 복원하면서 프로그램을 채우지 않고,
 그것들이 시간과 수요에 따라 가변적으로 활용 가능한 ‘틀’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이 장소를 청소년들이 만들어 나가는 도시로 보고 입체적 광장과 집,
 그리고 길을 구성하였다.



©(주)조진건축사사무소

대방청소년문화의집 입구

도심 속 부족한 가용지와 유희공간

경사진 지형 속에 대단지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선 대방동. 부지는 마을 중앙에 산지 상부를 평탄화하여 만들어진 대방 근린공원의 산 자락 하부에 감추어져 있다. 부지 약 1킬로미터 반경으로 20여 개의 초·중·고가 있으나 마땅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주민들은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공간 마련을 꾸준히 동작구에 요청하였고, 먼저 그러한 장소가 될 수 있는 곳을 모색하였다. 서울 도심 속에 가용지는 늘 부족하다는 제약 속에서 지하에 방치된 벙커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는 매력적인 잠재성을 가지고 있었다. 동작구는 먼저 이 공간이 청소년 시설로 활용 가능한지와 인근 청소년들의 수요를 조사하여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게 된다. 이후 당시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을 통해 공공건축가 참여 신청을 받아 7개 팀을 대상으로 설계 공모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프로젝트가 출발하였다.

지하 공간의 새 발견

공모전 참여를 지원하게 된 계기는 이전에 서울시와 수행한 고가하부 활용계획, 지하 유희공간 활용계획 등 평소에 도심 속 유희 부지의 잠재성을 탐구하는 데 매력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거창한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재개발보다는 기존의 것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도시의 촉매로 존재하던 것들과 새로운 관계성을 창조하는 것이 보다 지속할 수 있는 방식이라 생각한다.

한편으로 근래 벙커를 활용한 프로젝트들이 주목을 받은 것도 한몫하였다. 제주 ‘빛의 벙커’라든지 여의도 벙커를 고친 갤러리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활용 면에서 정적이고 일방향적 관람이 가능한 공간으로, 지하 벙커가 동적이고 활동적인 공동체 소통공간으로 활용된 적은 없었다. 따라서 이번 작업은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 판단하였다.

지하 벙커라는 환경적 제약을 극복하여 비일상적이고 특수한 환경에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함께할 수 있는 스포츠와 창작 활동, 교육과 휴식을 위한 복합적인 장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주요 과제였다. 또한 대방 근린공원의 초입이 되는 가로와 접하는 특성상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의 시민들에게도 내외부 공간을 통해 일상의 공공공간으로 기능하기를 요구하고 있었다.

©(주)조진만건축사무소



상 대방청소년문화의집 외부 전경
하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대방청소년문화의집



기존 벙커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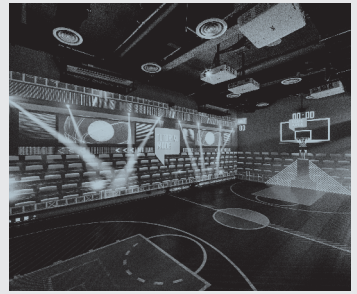
첫 대지 방문 후 모든 건축가가 입을 모아 비탈면 산지를 파내어 묻혀 있는 벙커를 일부 노출하고 천장을 통해 채광과 환기를 함으로써 지하의 제약을 해소하는 방식을 타진하였다. 그러나 상부 지반의 불안전성과 가파른 경사, 오래된 구조체의 안전성, 그리고 무엇보다 벙커라는 대공간과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미미한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Palimpsest: 다시 쓰기의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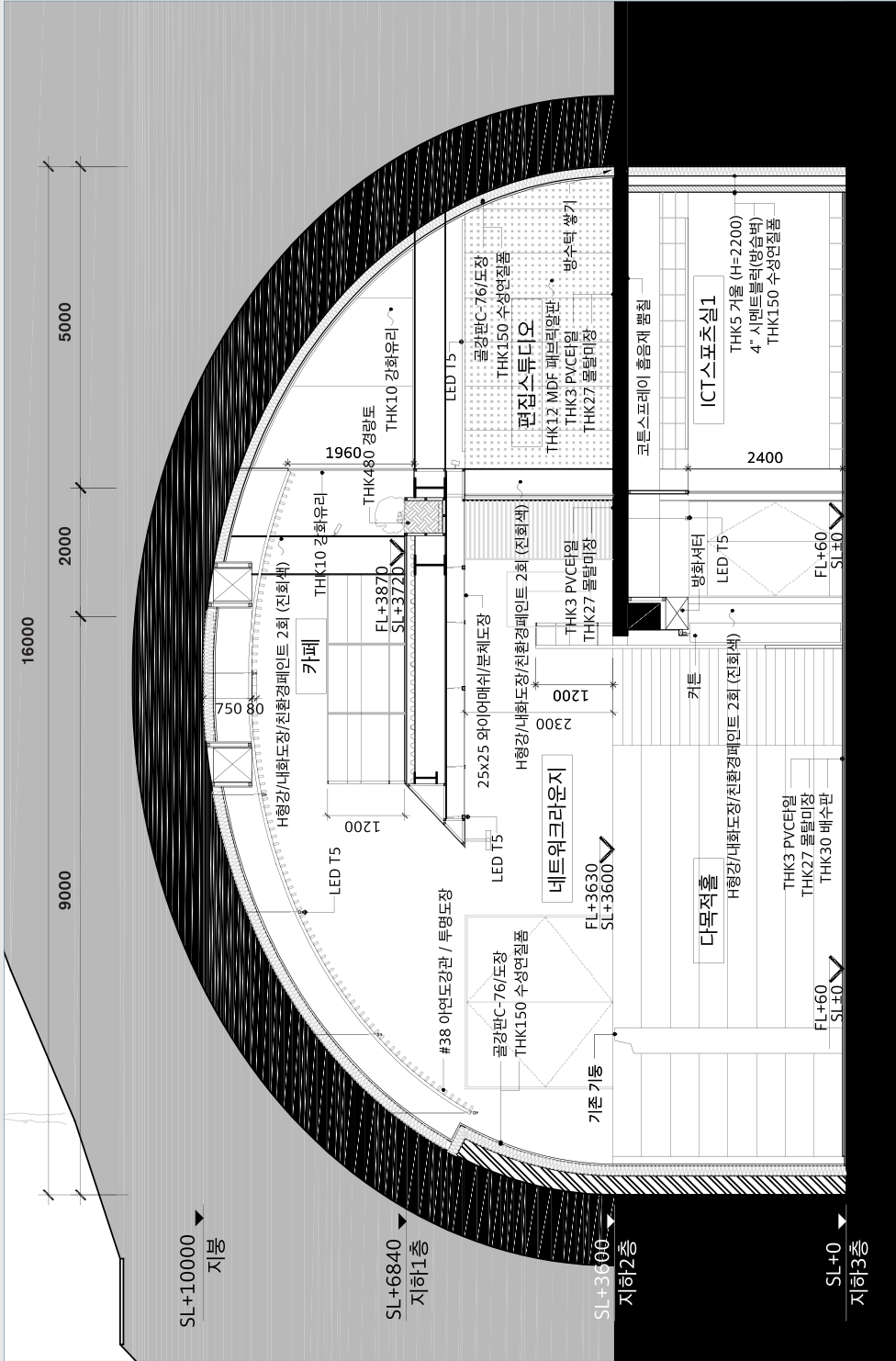
대방동의 벙커는 조성 시기가 불분명한 군용 시설이다. 가로 45미터, 세로 12미터, 높이 10미터의 지하 공간은 아파트 단지 옆 대방공원 안에 묻힌 채 완전히 도시에서 숨겨진 공간이다. 6·25전쟁 이후 인근에 보라매공군단이 위치하게 되었고, 이즈음 부대의 전시 작전기지 및 군수품 저장소로 특이하게 2개 층으로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돌산을 깎아 들어가 비교적 안정된 지반에 벙커를 만드는 것과 달리 이곳은 평지에 벙커와 배수지를 건설하고 그 위에 대규모의 성토를 해서 인공산이 만들어진 것임을 나중에 지반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 처음의 군용 목적이 사라지고 방치되다가 1980년대 한동안 주류업자가 와인 저장고로 쓰기 위해 구에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한 기록이 있었다. 그 이후 상부 근린공원의 관리용 자재창고 또는 건설 폐기물 보관소로 사람의 출입이 제한된 곳이었다.

초기 한 달 남짓 짧은 공모전에서 제한된 자료로 만든 설계안은 상하 두 개로 분절된 공간을 중앙부 다목적 대공간의 보이드와 스탠드를 통해 연결하고 양단에 주요 실들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본격적인 설계에 돌입하여 각종 조사와 실측을 해 보니 타당성 검토에서 확인된 제반 정보들이 대부분 맞지 않았다. 또한 이 공간에 대해 국방부에서 아무 자료를 찾을 수 없었고, 앞서 여러 사용과 변화를 통해 덧대어지고 변경된 부분들도 많았다. 이 때문에 마치 고고학자가 유물을 발굴하듯이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어두컴컴한 고분과 같은 벙커 속에서 설계를 멈추고 두세 달간 조사와 부분 철거 등을 거듭해야 하였다.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주)조진만건축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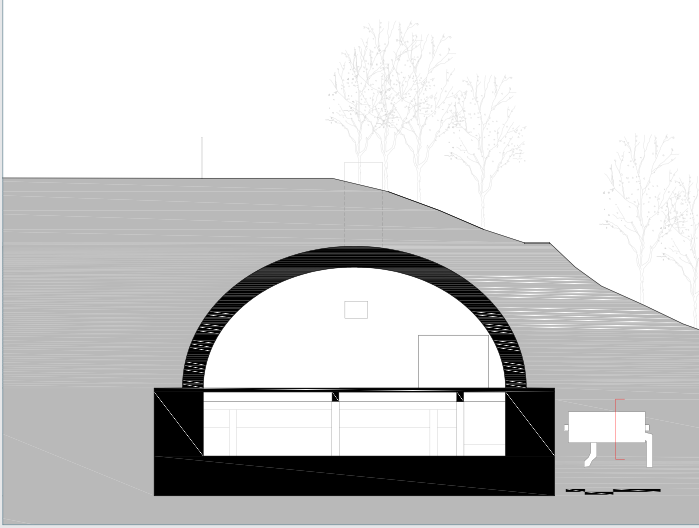
상 2층 메이커실
중·하 1층 ICT스포츠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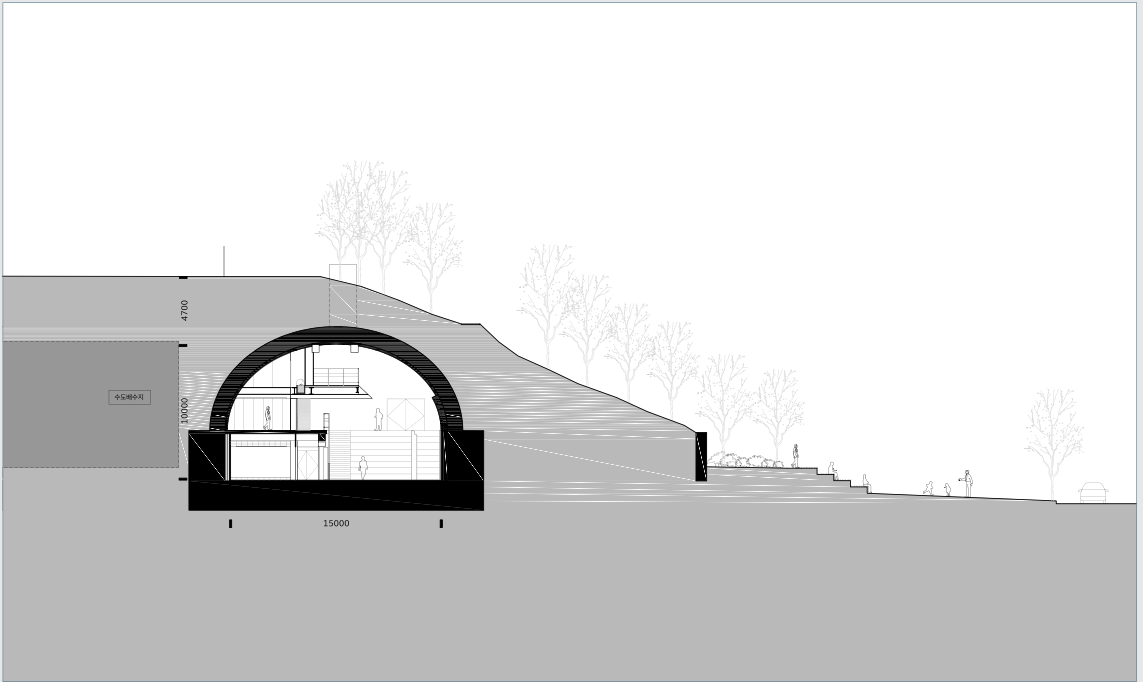
상세 단면도

주방/서빙/음료(포)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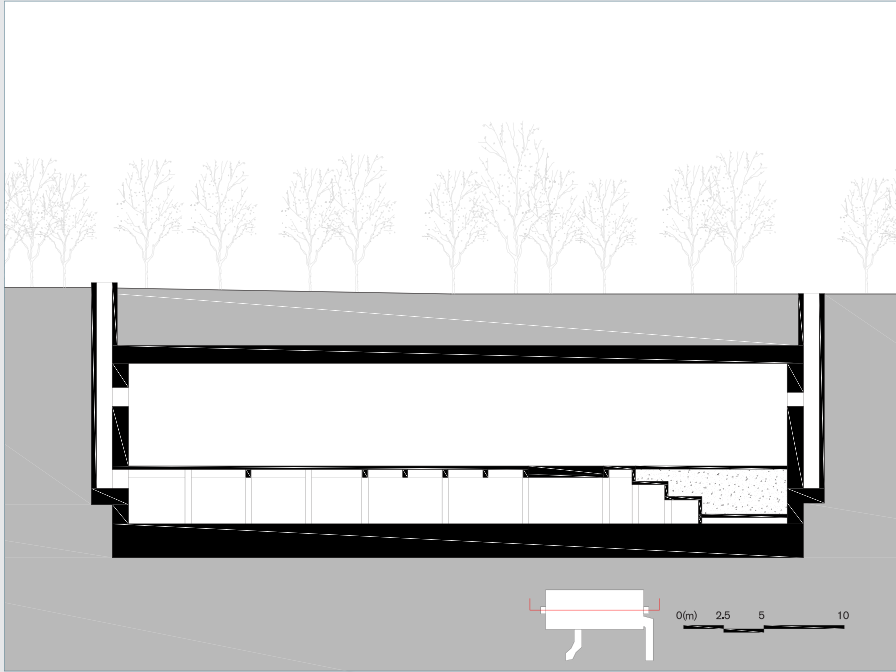
©(주)조진민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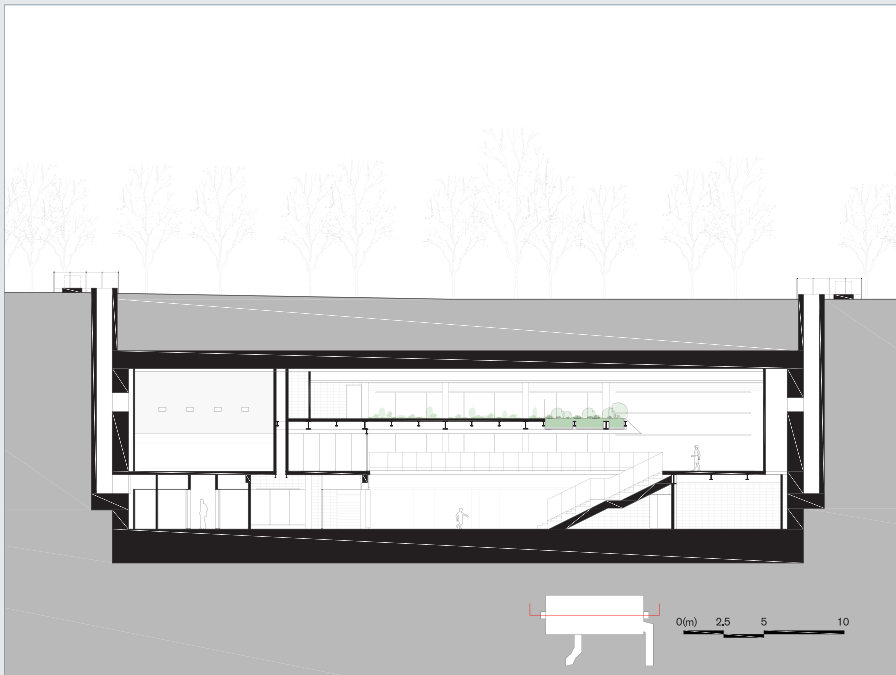
©(주)조진민건축사사무소



단면도(변경 전후)



©(주)조진민건축사사무소



©(주)조진민건축사사무소

단면도(변경 전후)

이 과정을 통해 알게 된 보다 정확한 정보들은 기존 설계안이 불가능할 정도로 다양한 변수들을 지니고 있었다. 어떻게든 청소년들의 새로운 소통공간으로서 기본적인 요구 조건들을 충족하면서도 병커리는 고유한 공간적 특성이 서로 방해 받지 않고 마치 거기 있었던 것처럼 잘 어울리게 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설계 대안들이 검토되었다. 이렇게 원형을 복원하고 관계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구조적 이슈, 기존 병커 구조물의 토목구조 분야, 새로이 개입되는 내부 요소들은 건축의 구조에서 모두 검토되었다. 아울러 겨울 답사에서 결로 문제와 기존 환기구가 막히면서 발생한 공조의 문제가 엮힌 데 덧붙인 격으로 새로 발견되면서 설계자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였다. 거기에 더해 설계 기간에 코로나19 팬데믹의 창궐로 발주처에서는 이 프로젝트의 기획이 타당한지에 대한 혼란감이 일었고, 이로 인해 설계자에게 각종 검토 요구가 물밀듯이 쏟아지고 자문회의도 수차례 열렸다.

불완전한 것에는 받아들이는 힘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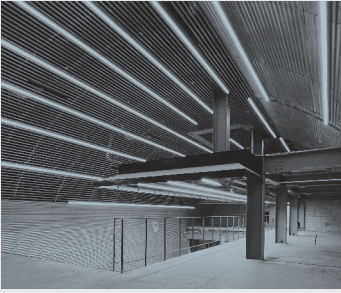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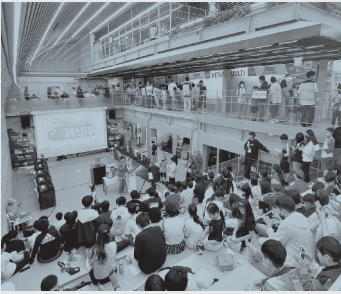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는 '다비드 타워'라는 짓다 만 45층짜리 고층 건물이 있다. 1993년에 개발자가 사망하고 거기에 지역경제도 붕괴되면서 이 건물은 뼈대만 완성된 채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러나 지속된 불황으로 살 곳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둘 10여 년간 방치된 다비드 타워에 모여드는 현상이 벌어졌다. 그곳은 현재 750여 가구가 불법 거주하며 세계 최고층의 '수직형 빈민가'라 불린다.

초기에 임시 거처로 텐트를 치고 살아가던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 점차 건물을 변형시켰다. 비바람을 막고, 옆집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각자 구해 온 다양한 자재들로 외벽과 방을 만들며 뼈대뿐인 사무실 건물을 공동주택으로 완성해 갔다. 이들이 채운 것은 비단 미완성 건물의 외관뿐만 아니라 유기적이고 자율적인 공동체였다. 그들은 게시판을 통해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정해진 일정에 맞춰 공용공간을 청소하기도 한다. 즉흥적이고 자발적으로 운동장, 교회, 상점 같은 공간을 만들어 건물이 마치 하나의 도시처럼 작동한다. 특히 엘리베이터가 없어 모두가 마주칠 수밖에 없는 계단은 쉬엄쉬엄 오르내리며 이웃과의 유대감을 쌓는 가장 주요한 소통의 공간이다. 이 미완성의 답이야말로 최소한의 느슨한 질서와 자율에 의

©(주)조진만건축사사무소



상 2층 미디어실
중 2층 네트워크 라운지
하 3층 청소년 전용 공간



상 청소년 페스티벌이 진행 중인 다목적
중 기존의 형태를 최대한 활용한 변화
하 대방청소년문화의집 입구

해 공간의 형태나 그 공동체의 관계성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열린 건축’이라고 할 수 있다.

대방청소년문화의집도 처음부터 벅커의 원형 스케일을 복원하면서 프로그램을 채우지 않고, 그것들이 시간과 수요에 따라 가변적으로 활용 가능한 ‘틀’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이 장소를 청소년들이 만들어 나가는 도시로 보고 입체적 광장과 집, 그리고 길을 구성하였다. ICT나 VR 같은 기술 기반 프로그램들은 수년 주기로 환경이 급변하는 특성이 있다. 그럼에도 이 시설은 그러한 변화를 원래 ‘틀’을 유지한 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또한 벅커 출입구 앞마당에는 보도가 확장되고 전면에 경사지를 활용한 ‘숲속 음악당’이 들어섰다. 이곳은 녹지 스탠드와 광장을 구성하여 쉼터·외부공연·강연 등 다양한 의미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모두에게 열린 문화 쉼터가 된다.

프로젝트를 통해 의도한 것

건축에는 궁극적으로 관계를 조직하는 힘이 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공간은 어떤 의미로든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을 규정하는 습성이 있다. 건축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사회와 그것이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삶의 방식, 또는 공간을 매개로 한 관습화된 관계성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 좋은 건축은 일상에 창조적 대안을 모색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형태의 물리적 완결성보다는 느슨하게 시간과 상황의 변화 가능성을 유도하거나 수용하며 작동하는 미완을 품은 여백의 건축이 보다 지속가능한 방식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느슨함을 통한 가능성 중심의 건축으로 인해 공간은 단순히 주어진 기능을 담는 도구의 틀을 초월할 수 있다. 미완을 품음으로써 사용하는 사람들이 채울 수 있는 생동감 있는 여백을 만들고, 또 우리를 그 속으로 이끄는 공간을 만들고자 한 것이 핵심이다.